

1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57.00	↓ 코스닥	850.37
	(-34.35)		(-2.05)
↓ 금리 (미국 9년)	3.101	↑ 환율 (원-달러)	1375.80
	(-0.062)		(+3.00)

metro® 경제

자정능력 상실 유튜브
방심위 권한 강화로
적극 대처를
02



“구글·퀄컴 등과 협력... ‘인간 중심 AI’ 고도화 집중”

삼성전자 ‘살롱 드 AI’

모바일 AI 사용자 삶의 질 일반인 보다 1.4배 더 높아 파트너사 개방형 협업 통해 책임감 있는 AI 개발 속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삼성전자가 인간 중심의 AI 개발에 집중해 곧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살롱 드 AI’ 행사를 열고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 등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구글, 퀄컴 등 파트너사와 함께 ▲인간 중심의 AI 대중화 ▲열린 협업 기반의 모바일 AI 혁신 ▲하이브리드 AI의 중요성과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AI 사용자 일상 변화시켜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모바일 AI 역시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사용자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AI를 최우선으로 더욱 혁신적인 AI 기술을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AI가 사용자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



피격에도 주먹 불끈 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다. 집회에 참석했던 군중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도 비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3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총알이 스치는 부상만 입었을 뿐 무사하다. 집회에 참석했던 군중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도 비밀 경호원들에 의해 사살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불끈 쥔 주먹을 흔들며 “싸우자”고 외치고 있다.

AP/뉴시스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런던대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 국가의 5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AI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물었다. 연구 결과는 모바일 AI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의 삶의 질이 모바일 AI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게 평가할 확률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 크리스 브라우어 박사는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AI라고 하면 노래를 추천해주고 철자를 고쳐 주는 등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작업 역할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기 계발, 건강, 생산성, 창의성 등 인간의 삶 모든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대현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부사장)은 “AI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단지 좋은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등 파트너 협업 ‘모바일 AI 혁신’ 확대

삼성전자는 이날 구글 등 파트너와의 개방형 협업을 통한 모바일 AI 혁신을 강조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공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韓 금리인하 관건은 ‘가계대출·고환율·집값’

통방문에 인하검토 문구 추가 부동산·부채 등 위험요인 많아 연내 금리인하는 어려울 듯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환율과 집값안정, 가계부채 등이 화두로 떠올라 연내 금리인하 단행이 어려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통

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없었다. 또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이 언급한 금통위원은 기존 1명에 2명으로 늘어나 금리인하

가 가까워졌음을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에는 인하감박이를 견상황이 아니라 금리인하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 10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금리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고환율, 집값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6월중 가계대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줄어든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월과 5월 각각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오르며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상품으로 수요층 심리에 변화가 생겨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부활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담대 대출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경우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개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한은이 미국 연방준

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지금보다는 내려야 한은도 안심하고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상현 “대권주자들이 출마해 네거티브 치열” /사진 뉴시스
▲ 輿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 트럼프 테러에尹 “끔찍한 정치폭력… 래유 기원”
▲ 輿, 탄핵 청문회 겨냥 “민주당 무리수… 국민 분노 유발”



▲ 이재명, 친명마케팅은 “친국민·친민주당 표현한 것” /사진 뉴시스
▲ 野, 증언 거부 이종섭·임성근 등 고발… 국회 모욕 고발

“자정능력 상실 유튜브… 방심위 권한 강화로 적극 대처를”

유튜브 “혐오 콘텐츠 허용 안해 정책위반 발견엔 위반신고 해야” 이용자 “신고해도 버젓이 게시돼”

매년 유튜브 콘텐츠 신고 늘어도 방심위, 인력부족 등에 조치 늦어

‘사이버 레커(Cyberwrecker)’ 유튜브 채널들의 범죄급 사건에 유튜브의 자정능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권한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이슈에 편승한 저질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을 일으켜 이익을 끌어 조취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유튜브 채널들을 뜻한다. 최근 EU와 프랑스 등이 해외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등 자국 법을 들어 제재에 나서기 시작한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채널들의 연합체인 ‘레커 연합’ 유튜브비 카라콜라(이세욱)와 ‘구제역(이준희)’ 등이 또 다른 유튜브 ‘썸양(본명 박정원)’의 개인사를 폭로하겠다고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사이버 레커 사건 후 각 유튜브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지만, 특히 유튜브 플랫폼의 자정 능력과 유튜브 각 콘텐츠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제재 가능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튜브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사이버 레커’ 관련 이미지.

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알고리즘 조정, 정책 업데이트, 채널 및 영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모질라(Mozilla)가 MIT테크놀로지 리뷰 기고에 따르면 2만 명이 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7개월간 유튜브 활동을 분석해 사람들이 추천 알고리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인 ▲싫어함 ▲관심 없음 ▲기록에서 삭제 ▲채널을 추천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가한 결과 이용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영상을 추천에서 거의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정책을 명백히 위반한 콘텐츠가 이용자의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추천되는 상황도 발견됐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콘텐츠 또는 타인의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이용자들이 문제적인 콘텐츠를 신고하고, 때로는 집단 행동에 나선 후에도 문제 콘텐츠들이 버젓이 게시돼 있음은 물론 채널의 수익 창출까지 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

이용자 개인의 알고리즘에서 삭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저질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항할 방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차단도 있지만 이마저도 인력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방심위는 유튜브 내의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심의하고 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구글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김병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방심위를 통해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 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59.5%인 1만 38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말 기준

2845건으로, 매년 심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은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 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률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레커 사건 또한 방심위의 심의 규정에 대부분 속한다. 그러나 지난 달 있었던 사이버 레커들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폭로 사건 당시 대부분 유튜브 영상은 제재를 받지 않았고, 이번 사이버 레커 협박 사건 또한 신속한 수익창출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방심위 자료를 공개했던 김병욱 전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가계대출 2.5% ↑… 전세대출 규제 손본다

5대 시중은행 대출잔액 710조 작년말 692조 대비 177조 증 전세대출 DSR 포함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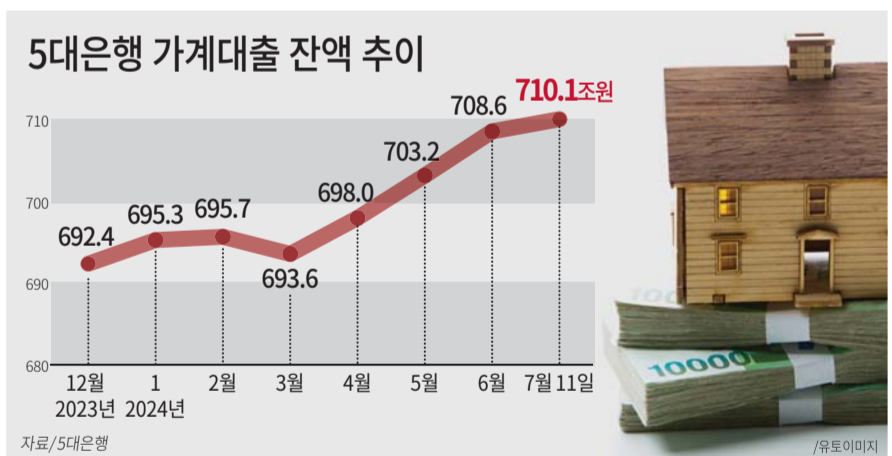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월 기준 710조 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 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 3685건으로 올해 1월(6만 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 2237억원에서 4월 4조 4346억원, 5월 5조 2278억원, 6월 5조 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



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역업체 83% “해상운임 급상승 애로”

무협, 긴급 물류 애로 설문조사 기업 40% ‘물류비 증가’에 애로 21.5% ‘선복 확보 어려움’ 부담

홍해사태 장기화와 중국발 밀어내기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글로벌 해상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주 서안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7월 8103달러(40ft 컨테이너 기준)로 지난 1월 2775달러 대비 약 3배 상승했고, 인도·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던 선박이 미주·유럽 노선에 대해 투입되면서 선박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도·동남아 노선 운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발표한 ‘해상운임 급등 관련 긴급 물류 애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3.3%는 현재 수출입 물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무역업체 573개사가 응답해 지난 6월 21일~7월 5일까지 진행된 설문에서 수출기업의 40.1%(중복 응답)는 물류비 증가로, 21.5%는 선복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수출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부산항 터미널의 수출 컨테이너 반입허용일 제한(3일)과 잦은 선박 일정 변동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수출기업은 터미널 반입 제한으로 인해 컨테이너를 항만 인근 외부 장

치장에 보관함에 따라 추가 보관료, 상하차 비용, 내륙운송료 등 불필요한 물류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해상운임 상승과 물류 불안정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46.2%)은 올해 4분기 말까지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28.4%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 운임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형식의 물류비 직접 지원(30.9%)’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및 운임 할인(23.9%)’, ‘항만 인근 물류창고 보관 지원(19.0%)’ 등 정책 확대를 원했다.

무협은 HMM과 협력해 해상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연말까지 매주 1000 TEU 규모의 선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우대운임도 적용한다. 또 한국해운협회와 협력해 인도·동남아 노선에 대한 선복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은 “물류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 “무역협회는 물류 리스크를 적기에 대응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어차피 정해진 답 없다… 뚝심으로 밀어붙여 승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⑧ 소유·경영 분리 경영철학 실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한 후 맞이한 첫 분기인 올해 1분기, 셀트리온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서정진 회장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셀트리온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7370억원이다. 창사 이래 분기 매출 7000억원을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셀트리온의 주력 사업 부문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57.8% 성장해 65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직전 분기인 지난 2023년 4분기 대비해서는 228.7% 커진 규모다.

아울러 셀트리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재고 합산에 따른 원가율 상승, 무형자산 상각 등 이미 예상된 합병 관련 일시적 요인을 반영해 154억원을 기록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앞서 지난 2023년 말 추진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는 셀트리온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했지만, 셀트리온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제품 경쟁력과 생산 역량에 합병으로 인한 ‘사업구조 최적화’가 더해져 셀트리온의 매출과 수익성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합병 전 셀트리온헬스케어(현재 소멸법인)가 보유한 재고 자산을 지속 소진하고, 매출원가율을 개선한 제품을 생산하면 매출원가율은 지난 2023년 4분기 기준 70%대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대로 감소했고, 연말까지는 30%대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또 셀트리온은 매출원가율이 낮아지면 공격적인 해외 입찰 등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보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삼총사의 합병을 통해 경영 투명성과 사업 효율화를 이뤄 글로벌 종합생명공학기업이 되겠다는 셀트리온그룹의 청사진은 하루 아침에 그려진 것이 아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20년 9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 합병 계획을 공시했다. 같은 해 10월, 셀트리온헬스케어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당시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5.62% 중 24.33%를 현물출자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한 것이 통합 셀트리온을 위한 첫 단계였다. 이후 적격합병 요건이 갖춰지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와 기존 ‘셀트리온홀딩스’의 합병을 즉시 추진해 2021년 말까지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당시 서정진 회장이 밝힌 계획이었다.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등 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승부수를 던진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 아주 처음부터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었다면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다. 초창기 더 이상 자금을 유치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서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두 개 회사를 세워야 했던 이유다.

서정진 회장은 사업 초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파트너사에 “바이오시밀러 성공 확률은 높으니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가져가고 개발비와 생산비를 부담해달라”고 설득해야 했다.

연구개발(R&D) 및 임상시험 과정에서 제품은 미리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시제품을 미리 구매했다가 허가 획득 후 제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독점 판권을 이용하면 판매 수수료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서 회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오직 서 회장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확보한 채 개발비를 셰어링하는 방식으로 서 회장만의 비즈니스 모델인 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그룹

“

‘통합 셀트리온’ 1분기, 매출 7370억 달성
전년동기 대비 23.3% 증가, 영업이익 154억
바이오시밀러 전년비 57.8%↑, 매출 6512억

지주사 존재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 단일화
합병 후 ‘사업구조 최적화’ 수익성 확대 예상
공격적 해외 입찰 등 비롯 해외시장 진출 확보

수성 위해 ‘전문 경영인’ 전진배치 전격 결단
3인 대표 체제 구축… 소유·경영 분리 실천
합성의약품 등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1회 모건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트리온헬스케어를 등장시킨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비 리스크’ 또한 서 회장의 몫이 됐다.

바이오시밀러가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탕진은 물론, 미리 만든 제품은 재고로 쌓이게 되는 셈이지만 서 회장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만에 하나, 유럽 승인이 거절될 경우 모든 짐은 혼자 지고 가겠다는 것이 서 회장의 각오였다.

바야흐로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열리고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부터 유통을 갖추고, 독보적인 직접판매 체제까지 구축한 대규모 제약회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통합 셀트리온과 함께 핵심 인물 3인의 각자대표 체제도 구축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조개발사업부 총괄로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을, 글로벌판매사업부 총괄은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를, 경영사업부 총괄에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다. 통합 셀트리온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과 동시에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의 이러한 경영 행보에는 서정진 회장의 경영 철학이 뒷받침됐다.

서 회장은 일찍이 2014년 3월, 단독대표체제였던 셀트리온이 공동대표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회사 정관 변경에도 나선 바 있다. 서 회장은 당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창업주가 성을 견고히 쌓아 올렸다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을 전진 배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실천한 것이다.

셀트리온의 상업적인 성과와 경영 측면에서의 기업 발전은 항상 서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기업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늘 내 자신에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막힐 때마다 한 발 한 발 걸으며 상황이 바뀌면 또 바꿔 걷는 것이다.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이다.”(자서전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중)

셀트리온은 현재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남겨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향후에도 매출 규모 확대, 경영 구조 단일화 등에 따른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합성의약품 등으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제약의 탄생 배경 또한 서 회장의 뚝심을 보여 주기에 충분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9년 셀트리온 계열사 코디너스를 통해 한서제약 지분을 인수해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셀트리온이 대표 제품도 없고 겨우 제조 공장만 갖춘 중소기업이던 시절, 서 회장은 그만의 통찰력으로 정통 제약사 인수에 나선 것이다.

서 회장은 한서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을 비롯해 영업망과 판매구조까지 내다봤다. 시장의 흐름과 업계를 조망하는 그만의 선견지명이 바이오벤처로 시작한 회사가 제약사를 인수한 국내 최초 사례를 만든 셈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최첨단 센서·AI 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할 것”

차기작엔 영양·심혈관 측정 등 추가 갤럭시 헬스 기술력 한층 더 고도화 워치 시리즈, AGEs 지표측정 기능 링과 함께 착용 시 24시간 모니터링 스마트디바이스 연결 인사이트 연구

“최첨단 센서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에 기반한 최신 갤럭시 웨어러블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욱 종합적인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할 것입니다”

박현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 갤럭시 링’에 담긴 삼성 헬스 비전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현수 팀장은 이번에 공개한 갤럭시 워치7 시리즈에 수면 무호흡 진단, 최종당화산물(AGEs) 지표 측정 등 새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차기작에는 영양과 심혈관 관련 측정 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갤럭시 웨어러블인 워치7, 워치 울트라, 링 등 신제품을 소개하며 갤럭시 헬스 기술력이 한층 더 고도화됐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에 마련된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방문객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살펴보고 있다.

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는 ▲수면 무호흡 진단 ▲불규칙 심장박동 알림 ▲최종당화산물 지표 ▲여성 생리주기 예측 ▲100가지 이상 운동 측정 기능 등이 탑재됐다.

링은 수면 분석에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심박수 알림, 자동운동 감지, 알람 제어 및 사진촬영 기능, 여성 건강 지표 측정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혈당 측정 기능

은 규제와 측정 정확도 등으로 인해 탑재되지 못했다.

◆ 갤럭시 워치7, 노화방지 기능 ‘최종당화산물지표’ 탑재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 가운데 이목을 끄는 것은 ‘최종당화산물 지표’ 측정 기능이다. 최종당화산물 지표는 지난 2~3개월간 혈당 평균치를 평가하는 당화혈색소(HgA1C)와 상관 관계를 갖는 지표다. 이에 사용자의 혈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홍대 ‘갤럭시 스튜디오’에 갤럭시 링이 전시돼 있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갤럭시 신제품군 사전판매를 시작했다. /뉴스시스

관, 장기, 관절, 망막 등에 축적된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평소 식사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삼성전자는 최종당화산물지표 측정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삼성의 료원 관계 병원,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등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지표가 사용자에게 식단과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건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7 시리즈에 한층 강력해진 최첨단 바이오액티브 센서를 탑재해 더 정확한 측정과 새로운 건강관리 기능을 지원한다. 최신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기존의 적색, 녹색, 지외선 외에 황색, 청색, 자색, 적외선 등 기존에 없던 다양한 LED를 탑재하고 각각의 헬스 데이터에 최적화될 수 있게 LED 센서들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고강도 운동 중 심박수 등의 측정값이 전작 대비 30% 더 정확해지는 등 정확도가 향상됐으며 새로운 색상의 LED 추가로 이전에는 감지하지 못한 건강 지표를 측정할 수 있게 돼 더욱 종합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지

원하게 됐다.

◆ 갤럭시링, 수면케어 중점 ‘24시간 건강관리’

초소형 컴팩트 갤럭시링에도 갤럭시 워치와 동일한 적색·녹색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다. 이에 수면, 활동, 수면 중 심박수, 심박 변이도 등 7가지 주요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지표화한 ‘에너지 점수’와 온디바이스 LLM(기기장착형 거대언어모델)을 연동해 사용자의 당일 컨디션을 전송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박 팀장은 “링과 워치7을 함께 착용하면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측정 정확도도 높아진다”며 “아울러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TV나 냉장고,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한 건강관리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두 기기를 함께 착용하면 갤럭시링의 배터리 지속시간이 최대 30%까지 연장돼 더 오랫동안 착용 가능한 장점도 있다. 갤럭시 버즈도 활용하면 사용자가 과도하게 목을 숙이는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면 스트레칭 알림을 보내 가볍게 목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프랑스(파리)=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대한민국최초사회보험
산재보험 60th주년

1964 2024

산재보험 60년의 보람
더 희망찬 내일의 바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하이브리드 AI·개인정보보호 중요성 강조

» 1면 “구글·퀄컴 등과 협력...”서 계속

제니 블랙번 구글 제미나이 UX 부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초창기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호흡 맞춰왔다. 이번 신제품에 탑재된 제미나이 기능 또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춰 함께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은 삼성전자와 함께 AI 기술과 모바일 AI의 중요성이 대두된 시점부터 갤럭시S24에 최초로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탑재하기 협력해 왔다”며 “두 회사가 한 마음으로 모바일 AI 기능 탑재 단말기와 진입 시점, 매끄러운 연결 경험 등을 함께 고민한 결과 혁신적인 AI경험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돈 맥과이어 퀄컴 부사장은 갤럭시 AI 경험을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단말기 최적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퀄컴은 업계 최고의 프로세싱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파

너사의 소비자 인사이트와 혁신 기술에 대한 협력으로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 리서치 글로벌 AI센터장 김대현 부사장은 “AI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단지 좋은 것(Nice-to-Have)가 아닌 사용자의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하이브리드 AI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중시해야 하는 책임감도 강조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키면서 갤럭시 AI 기술의 혜택을 더 많은 사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해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당연히 OF COURSE

마음껏 비교하고 추천받는 금융상품은 물론
개인 맞춤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도 당연히
NH올원뱅크로 즐기는 혜택 가득 금융생활

 NH올원뱅크



무엇이든 당연히 OF COURSE

마음대로 가능한 코스

내 맘대로 상품 비교하고
추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몰

나만을 위한 코스

몰랐던 나의 금융 패턴 분석부터
금융 여정을 편리하게 지원

언제나 특별한 코스

매일 참여 가능한 이벤트와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농·축협 제외) 또는 고객 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880(2024.7.10-2025.7.9)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NH농협은행

‘尹 탄핵·이진숙’ 등 연이은 청문회… 예고된 與野 격돌

법사위,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野, 거부권 무력화 상설특검 검토
與 “국회 규칙 입맛대로 바꿔”
野 “국정농단 그림자 짙게 드리워”
방통위원장, 국제청장,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달 열릴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첫번째)를 비롯한 야6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에선 각종 청문회가 열려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동의)을 맞추는 데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1주기인 19일에 열리고 26일에 한 번 더 열린다. 19일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다루고, 26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청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는 등 순직해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시 불참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

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하는 등 법사위원장을 움직여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면서 “특검법을 발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1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민생개혁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가리고 있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검으로, 국정 조사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

울함을 풀기 위해, 수사 외압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7월 말에 열려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예정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혹, 노조 탄압 의혹, 과거 보도 편향 의혹 등을 따져 묻기 위해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닌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 연속 청문회를 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강민수 국제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前대, ‘네거티브 공세’ 과열… “元 오히려 고립 당해”

원희룡, 한동훈 ‘3대 의혹’ 공세에도
韓 지지율, 세 후보 합 뛰어넘는 45%
리스크 해결 안된 상태에서 역풍 맞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서로 상대방을 찌르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2~3위를 달리는 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과오·의혹·실수 등 부정적인 면을 띄워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은 ‘후보 검증’이라는 말과 결합돼 정당성을 얻고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거나 현안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에게 지원 사격을 받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원희룡 당 대표 후보

는 원희룡 후보는 본격적인 TV토론에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한 ‘3대 의혹(여론조성팀, 사천,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을 띄우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성팀을 꾸렸다는 것이고, 사천 의혹은 한 후보가 총선 때 한 후보측 인사들을 공천 했다는 주장이다. 또, 원 후보는 한 후보 측인 김

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는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원 후보는 일주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TV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당 안팎 지지율은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세 후보 지지율 합(30%)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이동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와 거리를 둔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지지자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원 후보와 친윤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보이기 때문에 이를 등에 업고 하는 네거티브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를 폭로해 친윤계가 한 후보를 고립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거꾸로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하고 일반 국민의 지지를 한 후보가 받아서 원 후보가 고립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전략은 이슈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가 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계속적인 역풍을 부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후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비대면회의를 열고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등을 금지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태홍 기자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않도록 노력”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7년 전 오 늘인 지난 1997년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

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000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공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두관, 중도층 공략 먹혔나… 李 바짝 추격

李 지지율 44.9%, 김 37.8%
정치권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예상 밖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이에 따라 8·18 전당대회를 흥행으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 김두관 후보는 37.8%로 집계됐다.
이는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일극체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중도층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것으로 풀이되며, 김 후보의 예상 박선전 배경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까지다. 조사는 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5%로 집계됐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9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의 1인 정당을 비판하며 ‘다양성’과 ‘분권’의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1·6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 옆 우이천 흐르고 전체가 평지

부동산 현장 르포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장위 뉴타운 첫 '푸르지오' 단지
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
석계역서 도보로 5분 채 안걸려
3.3㎡당 분양가 평균 3507만원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지난 주말 찾은 현장은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에서 걸어서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석계역에서 제일 가까운 공사현장 3개이트를 기준으로 오른편은 석계역문화공원이 있고, 우이천이 단지 바로 옆에 붙어 흐른다. 왼편으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사가 한창인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를 마주 보고 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는 단지 전체가 평지다.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는 지상 33층, 15개 동으로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718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가 370가구, 84㎡가 348가구다. 입주는 오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 건본주택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지난 12일 오픈한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 건본주택에는 무더위에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 평일임에도 오후까지 입장은 물론 각 유닛을 보려는 줄이 이어졌다. 건본주택에서는 59㎡ A타입과 84㎡ B·D타입의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지하에는 전체세대가 이용 가능한 세대별 창고를 마련한다. 특히 장위뉴타운 내에서는 유일하게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장위동 A공인중개업소대표는 "장위뉴타운 내에서 보면 돌곶이역과 붙어 있는 장위 자이 레디언트와 석계역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의 입지가 가장 좋다"며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장위6구역의 일반 분양도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의 3.3㎡(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7만원이다. 앞선 청약에서 성공한 경기도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평형별로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가 9억6799만원, 전용 84㎡가 12억1100만원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주변 시세보다 높았지만 최근 집값이 들쭉이면서 분양가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내년 3월에 입주를 앞둔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입주권은 전용 84㎡가 지난달 12억1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입주권은 모두 12억원대다.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 단지 바로 옆에 우이천이 위치해 있다.

/안상미 기자

기존 신축들의 가격도 뛰는 분위기다. 장위뉴타운 대장주택인 꿈의숲아이파크가 지난달 전용 84㎡가 1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2000년 12월에 입주한 단지다. 매도호가는 84㎡가 최고 13억원대까지 올랐다.

B공인중개업소 실장은 "장위뉴타운 전체적으로 가격 회복세가 뚜렷하며 인근 '꿈의숲아이파크'와 '장위래미안포레카운티', '장위 레미안 퍼스트하이' 등의 거래량도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단지 안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한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이다.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달리 대부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장점이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나 실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무신불립'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

“무신불립 신념으로 내부통제 강화”

우리금융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
임종룡 “영업점 금융사고 뼈아파
임직원 절박한 마음으로 자성해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무신불립(無信不立·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의 신념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의식 내재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1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영업점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뼈아프다”면서 “임직원 모두 절박 끝에 선 절박한 마음으로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 어려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은 정상 정복을 위

한 베이스캠프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를 대반등의 기회로 만들어 달라”며 “14개 자회사 모두가 우리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온 힘을 다해 분투해 나간다면 시장과 고객들로부터 다시 신뢰받으며 선도금융그룹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맨 앞에서 함께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워크숍에서 기업금융, 자본시장, 자산관리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은 10년 내 10위권 증권사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오는 11월 말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 '뉴원(NewONE)'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기업문화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우리금융은 영업력, 업무역량, 품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임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직원 6명을 전 계열사에서 선정해 '우리금융인대상'을 처음 수여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카드업계, 수해피해 고객 대상 청구유예·이자 감면

삼성카드, 결제대금 최장 6개월 유예
현대카드, 신규대출 금리 30% 우대

카드업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올 7~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이어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

오는 10월까지 피해 고객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를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낮춘다. 같은 기간 만기도래하는 고객은 재연장도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청구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유예한다. 기존 대출은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한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책정했다.

롯데카드도 피해복구에 동참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달 31일까지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를 30% 인하하고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된다.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담은 각 사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신한금융, 재난피해 지원 상시 대응체계 구축

긴급생활안정자금 규모 협의 등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각종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 ▲지원 규모 협의 및 결정 ▲지원 실행 및 지원 내용 전파로 이어지는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역에 보다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 상환유예(이상 은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카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라이프) 등의 그룹사와 함께 하는 금융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또 비금융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N GO 단체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망을 갖고 있는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은행 지역본부-지자체 간 지원 사항 사전 협의→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여부 및 품목 확인→ 지자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신청→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구비해 놓은 구호 물품을 지자체에 직접 전달→ 지급된 물품 수량에 맞춰 기부금 후원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대응한다.

아울러 상구호 물품 외 타 품목 요청 시 본부별 1억원의 한도로 관련 경비를 선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최초 지원 이후 1개월·1년 경과 시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안정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단계별 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 5000만원 역대급 임금 인상... 업계 후폭풍 우려

완성차업계 최초 임금협상 마무리
현대차 6년 연속 무파업 교섭에도
핵심부품업체 노조 총파업에 몸살
기아노조 영업익 30%성과급 요구
한국지엠·르노 등도 신경전 예상



현대자동차 노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 처음으로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마무리했다. 다만 현대차 노사가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6년 연속 무파업 임금협상 교섭을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 328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3만 6588명(투표율 84.53%)이 투표에 참여했고 2만 1563명(58.93%)이 찬성해 가결됐다.

올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 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500%

+18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담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협상에 따라 직원 개인당 평균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됐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 폭이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노사는 15일 올해 임협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만형인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핵심 부품계열사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교섭을 마무리 했음에도 생산 가동을 멈추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핵심 부품업체가 민주노총 급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자회사 모트라스는 지난 10일 오전·오후 조가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생산라인도 멈춰섰다. 모트라스는 콕핏(운전석)·새시(차대) 등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다.

현대모비스 자회사지만 완성차인 현대차·기아에 핵심 모듈을 직접 공급한다. 부품 재고를 줄이기 위해 완성차 수요에 모듈 생산을 연동해 실시간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모트라스의 생산라인이 멈춰서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기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대차 노사가 역대 최대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기아 노조도 눈높이가 높아졌다.

기아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가 임단협을 앞두고 내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인원의 과반 이상이 4000만원 이상을 성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아노조측은 지난해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1.63%로 현대차(9.3%)보다 높았던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인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도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부활을 알린 한국지엠은 지난 8일부터 노조의 부분파업이 시작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1일까지 인천 부평

공장서 17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에 지난해 회사의 순이익(연결기준 1조 4996억원)의 15%(약 2249억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통상임금 기준 300%의 상여금을 달라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반면 회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7만 9000원으로 노조와 간극이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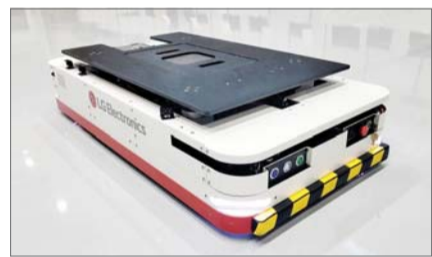
올해 4년 만의 신차를 출시하며 내수 반등을 노리고 있는 르노코리아는 지난 11일 노사 본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실적 악화로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KG모빌리티도 3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노조가 3년 정년연장안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AMR' 글로벌 안전표준 인증

(산업용 자율주행로봇)

자체 개발한 저상형 AMR
'ISO 3691-4' 인증 획득



LG전자는 산업용 자율주행로봇(AMR, Autonomous Mobile Robot·사진)이 글로벌 안전 표준 인증을 받으며 우수한 안전성과 제조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에서 자체 개발한 저상형 AMR은 최근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업체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ISO 3691-4'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기업 중 글로벌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인증을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LG전자가 획득한 'ISO 3691-4'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 안전 표준으로, 산업용 자율주행로봇의 안전 요구사항이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위험을 줄이는 이중화 제어 기능 및 기구적 안전 설계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5월 유럽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준수해야 하는 기계류 지침 법규(Machinery Directive)'를 충족하는 주요 표준으로 승인돼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안전 인

증으로 공표되기도 했다.

AMR은 미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무인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에서 한 발 더 진화해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차세대 물류 로봇이다.

이 로봇에 적용된 안전제어기는 센서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감지해 로봇이 안전하게 감속 및 정지하도록 한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이동로봇 구동안전제어기의 'ISO 13849-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제어기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검증을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해 'ISO 3691-4' 인증을 획득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정기섭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2일 진행된 제3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 밸류데이에서 '기업가치 제고전략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2026년까지 2조 규모 자사주 전략 소각"

포스코 이차전지 사업 밸류데이 120개 구조개편으로 2.6조 마린 핵심사업 재투자·주주환원 사용

포스코홀딩스가 오는 2026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략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한다.

14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2일 '제3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주환원 대책을 공개했다. 포스코그룹은 우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120개의 구조개편을 실시해 2조 6000억원의 현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현금은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재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주환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 10% 가운데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345만주(4%)를 제외한 1조 9000억원 규모의 525만주(6%)를 오는 2026년까지 전략 소각한다.

또 추가로 1000억원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한 뒤 즉시 소각하기로 이사회 의결했다.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 외 즉시 전략 소각하겠다는 게 포스코홀딩스의 기본 정책이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사업 부문에서 인도와 미국지역에 상공정 투자를 추진하

고, 동시에 저수익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사업에서는 캐즘을 기회로 삼아 염호, 광산 등의 리튬 우량자원을 확보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비해 국내에서 제련·정제를 마친 니켈 제품을 생산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향후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 소재사업 분야에 투자를 지속해 2026년까지 리튬 9만 6000톤, 니켈 4만 8000톤, 양극재 39만 5000톤, 음극재는 11만 4000톤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극재는 고객 다변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한다. 음극재는 세계 유일의 'IRA 적격', '중국 등 외국 우려기업(FEOC)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기업으로서 천연·인조·실리콘계 음극재의 전체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세대전지 소재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전고체 전지 상용화 계획과 발맞춰 전고체 전지 3대 핵심 구성요소인 양극재, 고체 전해질, 리튬메탈 음극재를 모두 공급한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성장 투자, 저수익 자산 조정 등 자본 효율성 개선과 함께 향후 3년간 교환사채 예탁분을 제외한 자사주 전략을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AI로 배터리 설계기간 2주→1일로 단축

최적 셀 설계 AI 추천 모형 개발
고객 요구사항 입력후 바로 도출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셀 설계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했다. AI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들이 원하는 성능 요건을 입력하면 최적 배터리 셀 설계안을 단 하루 만에 도출해내는 '최적 셀 설계 AI 추천 모형'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배터리 셀 설계는 고객사가 원하는 주요 성능 인자(용량, 에너지 밀도, 저항 등)를 만족하는 최적의 셀 조성을 도출해내는 업무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의 소요 시간은 약 2주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셀 설계 단계에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최적 셀 설계안을 제시해 고객가치 제고는 물론 업무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배터리 셀 설계가 가능해지면서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을 대폭 개선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설계자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과 속도로 셀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배터리를 고안하려면 배터리 셀 설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여러 차례 설계 가안을 만들고 예상 성능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AI 추천 모형

은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최적 설계안을 단번에 도출해낸다. AI가 만들어 낸 설계 값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포함해도 하루면 설계안을 확정 지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객의 요구에 더 빠르게 최적의 설계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사내 셀 개발 시스템에 최적 셀 AI 추천 모형을 연동해 점차 배터리 셀 설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 적용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배터리 셀 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 및 팩 설계에도 해당 AI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태양광 사업 동력... 삼성물산 상사부문, 실적상승 기대감

지난 4분기 호실적 '반등 조짐'
2분기 매출액 11.6조, 9% 증가
영업익 7884억, 2% 상승 전망
파이프라인 16.2GW 규모 확보
연내 총 20GW 규모 확대 예정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태양광 산업을 동력 삼아 2분기 실적 상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상사부문은 지난해 연간 기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4분기부터 호실적을 받아들이면서 반등의 조짐을 보여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7%가량 상승한 57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 결기준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3% 감소한 36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익률은 2.7%로 오히려 전년 대비 0.



삼성물산 상사 부문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조성한 태양광 발전소. /삼성물산

7%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양광 개발 사업의 기여가 크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변동성 높은 경제 환경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매출보다 그 하락 폭이 덜해 개선된 수익성을 보였다. 전분기 대비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49.1% 증가했다.

연간 부문과 달리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기준 실적이 호조를 보인 요인으로는 '태양광 사업'이 꼽힌다. 신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던 태양광 개발

사업이 본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삼성물산의 성장세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 측에서도 삼성물산의 2분기 매출액이 11조5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884억원으로 2% 늘어나며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사부문은 전통적인 트레이딩(중계 무역) 업무에서 벗어나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 사업으로 미래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그린필드(초기)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전력 계통 연결 조사 후 제반 인·허가를 취득하는 전 과정을 담당한다. 발전소 착공 이전까지 사업 개발자 역할을 수행해 '태양광 사업권'이라는 일종의 무형 자산을 수익화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선진국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심과 투자가 많고, 관련 제도

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지난 2008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이 분야에서 첫 매각이익(2200만달러)을 거뒀고, 2022년 4800만달러, 2023년 5800만달러 등 연평균 70%에 달하는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미국에서 거둔 누적 매각이익은 1억28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은 현재 총 16.2GW(기가와트)의 태양광 개발사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4.9GW, 호주 1.3GW다. 올해 말까지 총 20GW 규모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사업 지역을 기존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독일까지 확대 추진 중이다. 향후 태양광 사업권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 전략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T, 韓 AI역량 결집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美 실리콘밸리서 '유나이티드 2024'
파트너사 확대, AI생태계 활기 기대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 AI 유망 기업들의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은 K-AI 얼라이언스의 연례 행사 '유나이티드 2024'를 지난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진행하고, 국내 AI 역량 결집을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행사는 지난해 6월 이후 두번째다. 유영상 SK텔레콤 CEO를 비롯해 15개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유나이티드 행사에선 참가 기업 모두가 대한민국 AI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키기 위해 얼라이언스 파트너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K-AI 얼라이언스는 공유·협력·



유영상(왼쪽 여섯번째)SK텔레콤 사장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AI 얼라이언스 유나이티드 2024' 행사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하고, 얼라이언스에 관심있는 AI 기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AI기업들의 규모감 있는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파트너사 협업체를 통해 기술과 사업 협력 관점에서 파트너사 확대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 얼라이언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파트너사간 협업 구조 고도화와 시너지 창출 가속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결집된 AI 역량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에도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래블업과 XL8 등 AI 테크 기업 2곳이 새롭게 얼라이언스에 합류해 초창기 7개사였던 파트너사 규모는 18개사로 확대됐다.

래블업은 생성형 AI 분야에서 GPU 및 AI 컴퓨팅 효율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독자 개발 기술로 한·미·일 특허를 보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XL8은 AI 기반 자막·번역·더빙을 제공하는 솔루션 미디어캐스트와 실시간 통역용 AI 솔루션 '이벤트캐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디어 특화 AI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글로벌 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글로벌 AI 테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 및 패널 토의도 진행했다.

실리콘밸리 기반 한인 벤처투자자(VC) 프라이머사제와 최근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 AI기업 업스타이지가 참석해 K-AI 생태계 확대와 스타트업 연합체의 역할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강연과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무빙스타일 출시 8개월 국내 누적판매 5만대

삼성전자는 이동식 스마트모니터 '무빙스타일'이 출시 8개월 만에 국내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무빙스타일은 훈수·이사 고객이 집중되는 5월 한 달에만 1만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훈수·이사 고객이 전체 '무빙스타일' 구매의 30% 이상을 기록했다. 일반 모니터와 비교해 20~30대 여성 고객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삼성전자스마트모니터에 무빙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한 이동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서현 기자 seoh@

네이버페이 해외여행 일정 등록하면 이용경비의 10% 페이백

네이버페이가 오는 12월 31일까지 해외여행 계획을 등록한 뒤 여행비를 줄이는 '해외여행 10% 아끼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프로모션 페이지에 본인의 해외여행 일정을 등록하면 여행지에서 받을 수 있는 네이버페이 결제혜택과 해외여행 보험 등 해외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네이버페이 QR결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네이버페이 해외여행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해외여행보험을 들면 이용금액의 10%(최대 3만원)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포인트 혜택은 별도의 신청없이 결제일 익월 내에 자동으로 제공된다. /이혜민 수습기자 hyem@

LG유플러스, IPTV에 '온디바이스 AI' 적용

자막 시인성 개선, 음질개선 기능 개발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인 U+tv 이용자들의 콘텐츠 시청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자체 개발 AI(인공지능) 익시(ixi)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와의 통신 과정 없이 기기 내에서 AI가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를 통해 구동되는 AI에 비해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초개인화 콘텐츠 추천, 자막 및 음질 개선 등 IPTV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초개인화' 기능을 선보인다. 초개인화된 U+tv는 고객의 시청 이력을 온디바이스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IPTV 홈 화면에 반영해 보여준다.

예컨대 평소 무료 영화 VOD를 즐겨 시청하는 고객은 눈에 가장 잘 띄는 홈 화면 상단에 AI가 추천하는 무료 영화 VOD 목록이 나타나게 된다. 시청 이력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홈 화면을 통해 콘텐츠 탐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영상 속 자막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자동으로 음질을 개선해 주는 기능도 개발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영상 속 자막과 한글 자막이 겹치는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한글 자막의 위치를 변경해 가독성을 높인다. 또한 VO D를 배속으로 빠르게 시청하는 경우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던 문제를 자동으로 개선해 고객들의 시청 경험을 개선했다.

이같은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고도화된 IPTV 서비스는 최신 셋톱박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기기 교체 등 번



LG유플러스 모델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고도화된 U+tv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거로운 작업 없이 온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U+tv에 도입된 익시 기반의 AI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생성형 AI인 익시젠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연구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美 대선 모멘텀’ 반영… 증시 불확실성 커져

코스피, 2900선 목전 ‘숨고르기’
日, 최고가 행진 중 2.45% 하락
美·中·홍콩 증시 나란히 상승세

“美 대선토론 이후 모멘텀 영향력
트럼프 당선 시 국내증시 약세 전망”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일본 등의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중국 증시는 정책적 호조가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모멘텀이 조기 반영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3.34% 오른 코스피는 12일 전 거래일보다 1.19%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29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11일 2891.35를 찍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2일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3.65%)와 SK하이닉스(-3.32%)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4.35포인트(1.19%) 하락한 2857에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2.05포인트(0.24%) 하락한 850.37,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70원 오른 1379.4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2857.00에 하락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닛케이평균주가)도 11일 42426.77을 기록하는 등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이어갔지만, 12일에는 전장보다 2.45%나 떨어진 채로 마감했다. 일본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도쿄일렉트론은 6.18%, 어드반테

스트는 5.57% 급락했다. 패스트리테일링 역시 4.85% 하락하면서 일본 증시를 끌어내렸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이른 미 대선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황순미 하나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선 토론 진행 이후 대선 모멘텀

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합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그널들이 포착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의 정책 해석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시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재임 당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했고, 이후 중국과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이 심화했다”며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재발한다면 한국과 중국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임 당시 코스피지수는 최고 2600선에서 최저 1890선까지 내려가며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11월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고,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위축시켜 자산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날 미국과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 지수는 0.62%, 스탠더드앤드푸어(S&P) 500은 0.55%, 나스닥은 0.63%씩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다우는 4만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졌다. 시장에서는 전날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년여 만에 전월 대비 하락한 호재가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는 중국, 홍콩 증시가 나란히 상승했다. 상해종합지수와 항셱지수는 이를 연속 상승하며 각각 2971.30, 18293.38에 마감했다. 다만 상해종합지수는 등락하며 혼조를 보였는데, 전날 공매도 단속을 중심으로 한 안정화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권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도 ‘부담’

이재명, 금투세 유예발언 ‘주목’
업계 “도입시기라도 결정해줘야”
금투세 시행 시 ‘주식이민’ 우려

증권업계가 금투용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과 관련해 복잡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유예 분위기 확산 자체는 반기지만 그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14일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는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면서도 “폐지가 어렵다면 도입 시기라도 오락가락하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주는 게 자본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자비로 금투세 도입을 대비하며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멈춰 줄 것을 요구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6개월 후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를 걷을 수 있는 전산 시

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요 고객인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도 금투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금투투자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위안대로라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2022년 말 여야당 합의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2년의 유예시기가 다 돼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른바 ‘증시 큰손’들이 국내시장을 꺼려 해외 증시로 ‘주식 이민’을 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은 금투세 유예 기간 중에 더 심화한 모습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이민이 아니라도 큰손 투자자가 세금 회피성 매물을 연탈에 쏟아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계다가 금투세 시행 전인데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까지 대거 ‘서학개미’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경기 회복 지연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야권 내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두고 대립각이 세워졌다. 이재명 전 대표 표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성장하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2일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 후보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말하는 것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양극화에 동조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이달 주가 8% 하락에도 목표가 상향 조정

metro 관심종목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조작 의혹에 위축
증권업계, 호실적·주주환원 기대

올들어 상승 랠리를 펼쳤던 현대차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는 2분기 호실적, 주주환원 강화 등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1% 하락한 27만1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현대차 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 소식 등으로 연초부터 강세를 보여왔던 현대차의 주가는 이달 들어 약 8% 하락했다. 현대차 동차 미국 판매 법인(HMA)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플턴 오로라 임포트 등 현대차 딜러그

룹은 HMA가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리고 이에 가담하지 않는 딜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실제로 이달 기관투자자 순매도 1위 종목은 현대차로 219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도 현대차를 1074억 원 순매도했다. 김규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연초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 호실적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지속됐지만, 판매량 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주가가 하루 만에 3% 하락했다”며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실적 안정성, 자사주 매입 등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신차 효과로 하반기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수급 효과, 신공장 가동에 따른 모멘텀(상승 동력),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감안하면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SK스퀘어, ‘웨이브·티빙’ 합병 결렬설에 주가 약세

웨이브 지분 40.5% 보유한 최대주주 SLL중앙, 원인 제공 의혹에 ‘반박’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협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웨이브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는 수익 개선 등 합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합병 결렬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웨이브 지분의 40.5%를 보유하고 있는 SK스퀘어는 직전 거래일이었던 12일 전일 대비 1.31% 내린 10만5300원에 장을 마감

했다.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티빙의 주요 주주인 SLL중앙(12.75%)이 이번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그러나 12일 SLL중앙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상에 우호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일단락 됐다.

웨이브는 오는 9월 지상과 3사(KBS, MBC, SBS)와의 콘텐츠 계약이 만료된다. 웨이브 가입자들의 주 이용 목

적이 3사의 콘텐츠 시청인 만큼 웨이브에게는 독자적인 콘텐츠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OTT 업계는 저마다의 대표 콘텐츠를 만들어 고정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애니메이션 전문 OTT인 라프텔은 전년도 매출액 297억원, 당기손익 2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국내 OTT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 애니플러스, 애니맥스 코리아 등 다양한 방송사의 애니메이션을 전부 감상할 수 있어 이용자의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전지원 수습기자 jiw13@

코원테크, 75.9억 규모 전환사채 소각

전환사채 중 23%… 지분율 2.81% ‘잠재주식 물량 해소 이슈 등 최소화’

이차전자자동차시스템 전문기업 코원테크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75억 9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 소각을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하는 전환사채는 지난해 9월 27일 코원테크가 콜옵선행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2022년 7월에 발행한 총 330억원 규모 제3회차 전환사채 중 23%에 해당하고 지분율로는 2.81%(신주 31만

3170주)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원테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번 전환사채 소각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잠재주식 물량의 해소 및 전환사채 관련 이슈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배터리사들의 투자 위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차세대 전고체 라인 장비 등 신규 장비 개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신선식품 넘어 일상용품도 신속배송... 퀵커머스 매출 급증

유통 캐시카우 '퀵커머스'

GS리테일 이달 매출 49% 늘어나 식용유 452%, 소용량채소 347% 등

홈플러스 상반기 매출 56% 올라 과일 78%, 축산 63% 등 급상승

유통업계의 고객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선 식품 위주였던 신속 배송 상품이 일상 용품으로 확대되면서 '퀵커머스 서비스'가 유통업계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우리동네GS' 앱 등을 통한 퀵커머스 매출이 지난 6월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9.4% 늘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편의점 GS25의 매출은 43.8%, 슈퍼마켓 GS더프레시의 매출은 54.1% 증가했다.

GS리테일은 2018년부터 편의점 퀵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까지 GS리테일은 전용 앱 우리동네GS 및 요기요,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과 전국 1만8000여 GS25, GS더프레시 매장을 연계한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퀵커머스 매출 상승 효과가 두드러지



GS25의 퀵커머스 주문 상품을 전문 배달원이 전달받고 있다.

/GS리테일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2021년 2월 퀵커머스 서비스를 론칭했고, 지난해 8월 배달의민족 스토어에 입점했다. /홈플러스

기 시작한 것은 7월 장마철부터다. GS25 퀵커머스 주문을 통해 식용유(452.5%), 소용량 채소(347.1%), 밀가루·부침가루(339%) 등 장마철에 많이 찾는 부침개 재료가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우산 매출은 6월 대비 308.9% 증가했다.

이외에 일반 식품 매출량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GS더프레시에서는 국산 과일(122.5%), 양곡(86.1%), 계란(85%), 국산 우유(66.8%), 양념류(65.2%) 순으로 퀵커머스 매출 비율이 상승했다. 먹거리 외에도 세습 용품(84.2%), 반려동물 용품(81.1%) 등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1만8000여 편의점과 슈퍼마켓 매장에서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퀵커머스 매출 비중을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또한 2021년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 지난해 8월 배달의민족 스토어에 입점했다. 올해 상반기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역시 신선식품 외 일반 제품 주문량이 매출 상승을 견

인했다. 과일(78%), 축산(63%), 채소(64%)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비스킷(81%), 면류(52%) 등 가공식품 퀵커머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퀵커머스 주문 고객의 절반가량이 저녁 식사 전인 오후 3시~7시에 주문해 주로 오전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는 대형마트 고객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주문 제품에 대해 다음 날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e커머스 업체 컬리도 지난달 말부터 퀵커머스 서비스 '컬리나우'를 새롭게 시작했다. 컬리나우는 소비자가 1시간

안에 주문한 상품을 즉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로, 소비자는 신선식품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 백화점의 화장품 브랜드들까지 총 5만여 개의 상품군을 만나볼 수 있다.

컬리 관계자는 "컬리나우는 일상의 장보기 외에 당장 상품이 필요한 고객에게 컬리가 엄선한 HMR, 그로서리, 뷰티 상품들을 1시간 내외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라며 "연말까지 서울 내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패션 유통업도 퀵커머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는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직진 배송 상품군을 넓히고,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당일 및 새벽 배송이 가능한 퀵배송을 도입해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지그재그 측은 설명했다.

지그재그 관계자는 "지그재그에 입점한 스토어의 매출 향상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 기술 고도화, 마케팅, 할인 기획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최저임금 '1만30원'... 소상공인, 인건비 걱정 커졌다

최저임금위, 내년 1.7% 인상 확정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직원 월 급여 209만6279원 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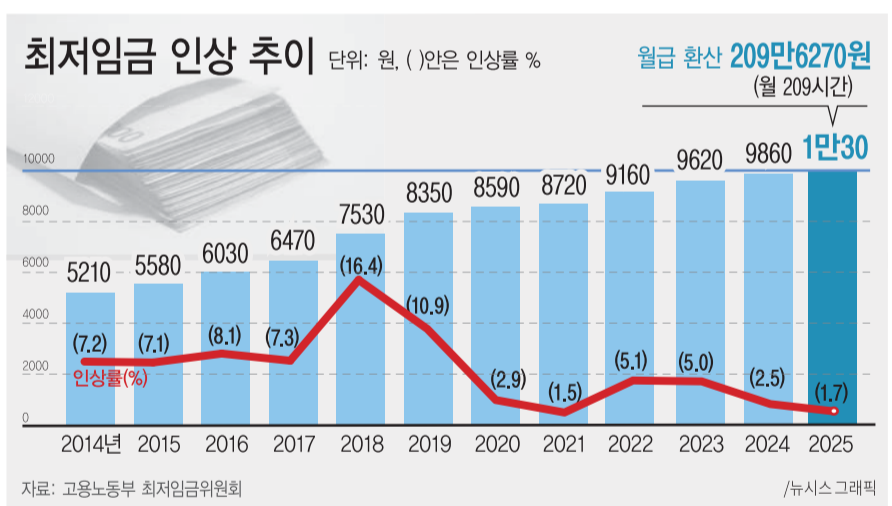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어서며 영세 소상공인·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수준에서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들은 가뜰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걱정이 더욱 늘게 됐다.

1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정을 넘긴 오전 1시부터 시작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론 월 209만6279원 꼴이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



년 적용 최저임금(8729원)이 전년(8590원)보다 1.5% 오른데 그쳤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절대 올려선 안된다고 일찌감치 배수진을 쳤다.

상징적인 숫자인 '1만원 천정'이 푼릴 경우 향후 견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6월 말 내놓은 호소문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이라며 "우리 경제 특성과 최저임금 지급주체의 경영실적을 감안,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달 2일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앞으로 달려가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공공요금과 금융비용 등 모든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이 하루하루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 최저임금 수준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한 만큼 이젠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부터 '동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고물가, 고금리 등의 상황에서 임금 근로자인 서민들의 지갑도 얇아진 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바람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이 코로나 팬데믹으

로 인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1.5%)보다 낮은 1.4% 이내에서 결정됐어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달랐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경영계)은 동결(1차)→9900(2차)→9920(3차)→9940원(4차)을 차례로 수정 제시하며 1만원 아래를 고수했다. 그러다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축진구간(1만~1만29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1만원이 살짝 넘는 1만30원을 제시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이 안이 최종 통과됐다.

경영계와 달리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최초로 제시했던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이후 1만1150→1만1000→1만840원까지 내렸다 마지막으로 1만120원(2.6%)을 제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의 심의축진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수출중소 2곳 중 1곳 "해상운임 상승에 어려움 겪어"

중기중앙회, 기업 300곳 조사 주요 애로사항 79% '과도한 운임' 운송지연 34%, 선복확보 곤란 28%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의 흉해 사태 등으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곳 중 6곳은 연초에 비해 물류비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달 1일부터 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상 운임 급등 및 선복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출 물류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54.3%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었다. '매우 그렇다'가 21%, '다소 그렇다'가 33.3%였다. 45.7%는 영향이 없었다.

주요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과도한 운임 요구(79.1%) ▲운송 지연(34.4%) ▲선복 확보 곤란(27.6%) ▲컨테이너 부족(19%) ▲화물보관비 증가(9.2%)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응답 중소기업의 61%는 물류비가 연초 대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상반기 이후까지 물류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도 41.1%에 달했다.

해상 운송 계약 방식은 응답기업의 96%가 포워딩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고 있었다. 반면 선사와의 직접 계약은 4%에 불과했다.

계약 형태도 포워딩 업체나 선사 직접 계약 방식 모두 '건별계약'이 각 93.8%, 83.3%로 '장기계약'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정부 지원책 활용(32.7%) ▲제품 가격 인상(17%) ▲바이어와 거래조건 변경(8%) ▲대체 운송수단 모색(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37.7%의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아울러 향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점 지원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물류비 지원 확대'를 원하는 기업이 82.3%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중소기업 전용 선복지원 확대(22.3%)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14%) ▲정부지원책 홍보 강화(9.7%) ▲주요국향 선박 투입 확대(6%) 등의 순이었다.

/김승호 기자

올해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2009건 한국, 주요 수출국 15곳 규제 34%

산업부, 2분기 기술규제 818건
지난 1분기 '사상 최고치' 경신
2분기 기술규제 통보 美 106건
이집트·브라질·케냐 순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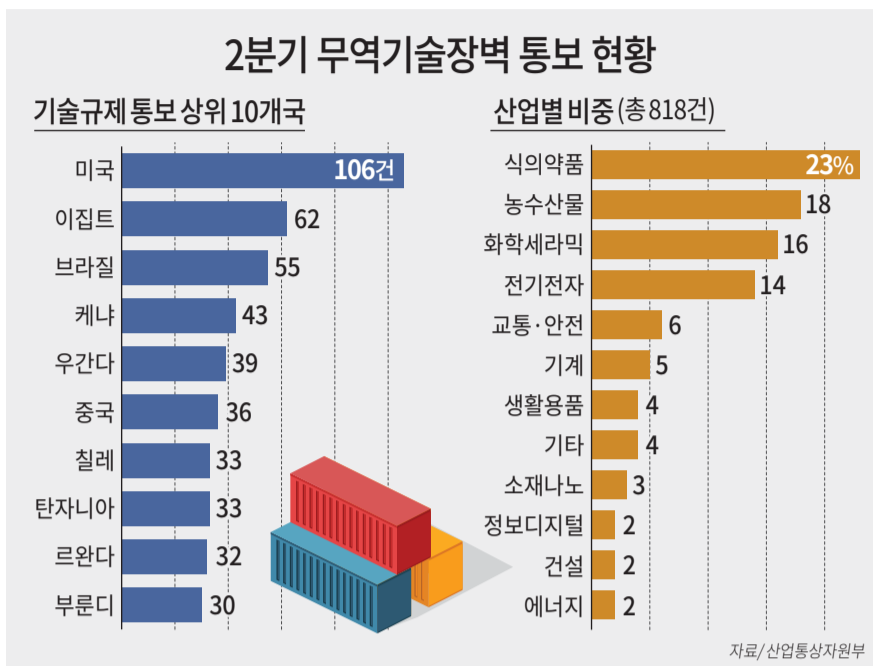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WTO 회원국 통보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1분기 기술규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 전년 동기(2053건)보다 소폭 줄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상세 현황을 보면,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62건), 브라질



(55건), 케냐(43건), 우간다(39건), 중국(36건) 순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등 10대 수출국과 칠레, 아랍에미리트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과 주요 기술규제 심층분석자료는 KnowTBT 포털(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새출발기금 확대·금융지원 3종 세트 점검”

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40조 원+α 확대 방침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

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다이소 등 불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호텔신라 등 조사대상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조사부터 호텔신라, 다이소 등 면세점 4곳과 전문판매점 4곳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9개 업체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는 지

난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11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 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인 지도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이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7개 업체에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 8곳이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추가된 납품업체 수는 면세점은 300곳, 전문판매점은 400곳이다.

아울러 작년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미, 기후변화·청정에너지 환경협력 논의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 재확인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기반한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해 왔다. 우리 측은 다자협약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환경부문 논의는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약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자협약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FTA) 환경챗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중소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7000억 돌파

근로복지공단, 1만8000개소 사업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에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7000억원을 돌파했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자는 2022년 9월 도입 이후 1년 10개월 만에 1만8000개소 사업장 8만3000여명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공단이 기존 운영하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제도 도입사업장을 합하면 9만2000개 사업장이 공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푸른씨앗의 올해 상반기 연 환산 수익률은 6.3%를 기록, 누적수익률이 11.0%에 달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7.0%의 수익률

을 거둔데 이어 올해도 목표수익률 4.1%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확정기여형 제도 가입자의 최근 5년·10년 연 환산 수익률이 모두 2%대에 머물고 있는 걸 감안하면 푸른씨앗의 수익률은 놀라운 수준"이라며 "높은 수익률이 가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푸른씨앗의 제도적 우수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올해부터 월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공단에서 추가 적립해준다. 그간 누적수익률 11.0%를 감안하면 해당 근로자는 2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장과 가입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환경부, 나주시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15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총괄을 맡는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4'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뉴스시스

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을 비롯해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광주시, 2030년 '자원회수시설' 건립 원점... 쓰레기대란 우려

주민 반발에 부지선정 최종 보류 선정방식 바꾼 후 입지공모 추진 2030년까지 소각장 가동 못할 시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 100억 넘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쓰레기 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30년 가동 전까지 5년안에 소각장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광주는 타지역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고 쓰레기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지난 11일 부지 선정을 최종 보류했다.

광주시는 부지 선정 방식을 '5개 자치구 선 신청, 광주시 후 결정' 방식으로 바꾸고 입지 공모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한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이곳 노동자들이 설 연휴 당시 배출된 쓰레기 봉투 더미 속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

개인·법인 등이 각 자치구에 유치 신청을 하고 주민 설득 과정을 거친 뒤 시에 의뢰한다. 광주시는 입지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입지 결정 고시'한 뒤 건립에 나선다.

입지 결정 고시까지의 과정을 2025년 안에 완료하면 자원회수시설 공사 기간 3년을 고려해 '2029년 완공·시험 가동, 2030년 본 가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됐던 선정절차가 2년여만에 보류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에 따라 2030년 가동 계획은 차질이 빚어졌다.

당장 5개 자치구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추진한 뒤 후보지를 선정

하고 주민 동의까지 마쳐야 한다. 설득의 과정이 쉽지 않아 후보지 선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광주시의 보류 결정도 입지 후보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고 각 자치구의 소극적 대응까지 더해져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구장들이 반대 목소리 최소화를 위해 소각장 유치에 뒷집을 질 경우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지역 하루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550t 규모이다. 5개 자치구는 양과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수수료 톤

당 1만8640원을 지급하고 매립 하고 있다. 매립장이 있는 남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가산금 10%를 더 지불하고 있다.

하루 쓰레기 처리 예산 1100여만 원, 1년 30억원~40억원여 비용이 발생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량도 늘고 있어 2030년에는 650t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 소각장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자치구는 인접한 타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맡겨야 한다.

현재는 가산금이 10%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1년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는 3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선정된 자치구에는 공사비의 20%인 600억~8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박차

광주시가 천안 호두과자, 경주 십원빵, 통영 꿀빵처럼 광주하면 떠오르는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 디저트 개발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맛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 음료, 선물용 간식 등 개발을 위한 '광주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사업자'를 오는 8월 2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특히 단순히 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제작부터 포장 패키지,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화순군

24시 어린이집 2곳 운영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2곳(화순한양탕스어린이집, 화순힐스테이트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부모의 야간경제 활동, 출장, 병원 진료 등의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이다.

이용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6개월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며, 시간당 보육료는 1000원으로 월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2000년 된 '주목나무' 전시

전남 신안군의 1004섬분재정원이 오는 28일까지 주목나무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최고의 주목분재 작품들과 함께 보호실에서 세심하게 관리된 2000년 주목나무가 전시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주목나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특성과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주목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고성군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 육성과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8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창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의 이해와 농산물 가공 인허가 절차 및 식품위생법 해설 등 이론과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실습 교육으로 총 7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농산물 가공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성(전남)=이도식 기자

포항국제불빛축제, 재미·경제 다 잡았다

불빛드론쇼 등서 높은 만족도 보여 올해 33만명 인파... 전년비 10% ↑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종합평가보고회에서 재미와 경제를 다 잡은 축제로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상길 포항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12일 보고회에서는 포항문화재단, 후원사, 유관기관, 자원봉사단체,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 60여 명이 참석해 축제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평가 용역 및 종합결과 보고,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항시는 축제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분석뿐만 아니라 주관사인 포항문화재단 및 불꽃연합회 총연합회를 담당하는 (현)한화와 함께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

인 철강도시인 포항을 상징하는 '불'과 '빛'을 활용한 메인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한 점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 축제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1000대 불꽃 드론을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빛드론쇼'와 국내 유일한 국제불꽃경연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어플을 통해 해외 3개국 중화려한 불꽃 연화가 강점인 중국팀을 우승팀으로 직접 뽑는 등 신선한 축제 경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축제에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3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축제의 인기를 입증하듯 전체 방문객 중 외지인 비율이 49.4%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방문객 중에는 재방문율이 67.3%로 충성도 높은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지난달 17일 경상남도 물가안정대책본부 회의 모습.

경남도, 물가상승률 2%대에도 안정화 총력

물가안정대책본부 구성·운영

경남도는 최근 3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2%대이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전국 대비 낮지만 물가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에서 결정하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전격 동결하고, '경상남도 물가안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경남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열

린 2024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표해 상반기 물가안정화 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 특별지시로 지난 6월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생활에 밀접한 품목 64종의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장성군,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 착수

필암서원~홍길동 테마파크 연결

장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필암서원과 홍길동 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매실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000여 만 원을 투입해 약 1.9km 규모 둘레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황룡면 맥호리 매실마을에서 시작해 홍길동 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까지 이어진다. ▲둘레길 개설 및 정비 ▲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며, 오는 10월 경 준공할 계획이다.

'홍길동 테마파크'는 역사 속 실존 인물로 알려진 홍길동이 살았던 아치실 마을에 조성된 관광 명소다. 홍길동 생가와 의적들이 머물던 산채 등이 복원돼 있다.

특히 여름에는 분수를 가동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다. 분수는 주말 및 휴일 10~17시에 운영하며,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평일에도 가동한다. /화순(전남)=양수영 기자

해남군, 12개 읍면서 '농촌 왕진버스' 운영

오는 18일 순회 시작

해남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청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해남군에서는 해남읍을 비롯해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마산, 산이, 문내, 화원 총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9개 지역농협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는 18일 문내면에서 순회를 시작한다.

의료 검진은 농촌 주민의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며, 주요 내용은 양·향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돌보기 서비스 등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버거부터 요거트·맥주까지... 'K-푸드' 日 시장에 출사표

한국 파이브가이즈-에프지코리아
내년 하반기부터 日점포 오픈 계획

스위트바이오 내달 중 日 도쿄에
'그릭데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제주맥주 日 주류 유통사와 계약
할리스 오사카에 '난바 마루이점'

국내 식품 기업들이 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가 큰 관심을 끌고 있고, 맛과 품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지금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기라는 분석이다.

◆한국 파이브가이즈, 향후 7년간 20개 매장 연다

한화갤러리아의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는 한국 파이브가이즈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파이브가이즈 인터내셔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에프지코리아는 향후 파이브가이즈의 일본 론칭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에프지코리아는 지난해 6월 미국의 햄버거 프랜차이즈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처음으로 론칭한 후 브랜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 여의도,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등 전 매장이 파이브가이즈의 '글로벌 톱10'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일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론칭 1주년을 맞아 1호점인 파이브가이즈 강남에서 김동선 부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에프지코리아

에프지코리아는 다음해 하반기 첫 점포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7년 간 도쿄를 포함한 일본 곳곳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오는 9월 경기 판교에 5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지방에도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릭데이, 꾸덕한 그릭요거트로 일본 여성 공략

식품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 스위트바이오의 내달 중 도쿄의 오모테산도 거리에 '그릭데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한 스위트바이오는 올해 3월 일본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푸드스케이프2024'에 참가해 현지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가능성을 점쳤다. 최근에는 롯데벤처스재팬으로부터 2억 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일본 진출을 가속화하게 됐다.

그릭데이가 일본 시장을 택한 이유는

소비자 반응이 주된 원인이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가야 할 그릭요거트 카페로 SNS에서 회자되며 해외 방문객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황금연휴라 불리던 골든 위크 기간인 지난 4, 5월 국내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이 부쩍 늘면서 그릭데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대본점(시그니처)과 압구정에 있는 '그릭데이(GO)'의 지난 4, 5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4% 증가했다. 스위트바이오의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 여성들을 집중 공략하고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겠다는 포부다.

제주맥주의 제주위트에일.

◆제주맥주, 일본 시장 공략 박차

국내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본 주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맥주는 지난달 일본 주류 유통사 유와무역과 제주위트에일의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유와무역은 하와이 수제맥주 코나비어, 알로하비어, 라나카이 브루잉 등을 판매하며 구축한 판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주위트에일이 제주의 청정 자연에서 얻은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지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린 '2024 일본 오사카 야키니쿠 비즈니스 전시회'에 참가해 대표 브랜드인 제주위트에일을 선보였다. 이 행사는 외식 업계를 타깃으로 1년에 한번



열리는 일본 유일의 대표적인 외식업계 전문 전시회로 경영자, 오피스, 요리장 등 구매결정권자들의 참석률이 높은 행사로 알려져 있다.

◆할리스, 오사카 접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지난 5월 일본 오사카의 중심지 난바에 직영점인 '난바 마루이점'을 오픈했다. 오픈 전부터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 이상의 대기열이 생겨나며 할리스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오픈 당일엔 약 900명이 방문한데 이어, 오픈 2주일 만에 1만명 이상의 고객이 매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SNS를 통해 할리스 난바 마루이점 방문 후기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여러 일본 매체에서 할리스 난바 마루이점 소식을 다룰 정도로 일본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오사카 한정 메뉴 '약과 크림라떼'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과 한국 전통 디저트를 맞출 수 있어 많은 일본 한류팬들에게 '반드시 먹어야 하는 메뉴'로 손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지만, 변화가 크지 않은 폐쇄적인 환경이라 접점에서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에 초기 진입해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잠실 롯데월드몰 4층에 오픈한 '위글위글' 매장 전경. /롯데쇼핑

잠실 롯데월드몰 4층에 독보적 디자인 '위글위글'

롯데백화점, 핑키타운 콘셉트 입점
시시호시와 협업 제작상품 선보여

롯데백화점이 잠실 롯데월드몰 4층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위글위글'은 화려한 색감과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사랑 받는 브랜드다. 월드몰에서는 핑키타운 콘셉트를 입혀 약 30평(100㎡) 규모로 입점해 다양한 상품과 시시호시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위글위글' 입점을 기

념해 '파티 초', '타포린 백', '폴더블 매트 세트' 등 위글위글 상품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롯데월드몰 내 비치된 '위글위글' 안내 리플릿 지참 시 5%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숍 '시시호시'와 '위글위글'이 협업해 '굿데이 3종 코지백(1만 5000원)', '듀오 와인글래스(3만 원)', '포터블 램프(5만 9000원)'를 특별히 제작했으며, 해당 상품들은 롯데백화점몰 시시호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백화점 '생성형 AI'로 사내업무 혁신

업무 매뉴얼에 대화형 AI 챗봇 도입

롯데백화점이 '생성형 AI'를 통해 전방위 업무 혁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생성형 AI가 사내 업무를 개선하는데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사내 업무를 다각도로 분석해, 업무 개선도가 높은 분야에 생성형 AI를 우선 적용한 후 범위를 확대해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업무 매뉴얼'에 대화형 AI 챗봇을 도입한다. 100개가 넘는 방대한 사내 업무 매뉴얼을 5개로 유형화한 후, 롯데그룹 AI 플랫폼인 '아이멤버'를 기반으로 챗봇을 운영한다. 사용자가 질

문하면 AI가 질문에 맞춰 복지제도, 권리/회계, 상품 진열, 식품위생 등의 카테고리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던 업무 매뉴얼의 단점인 느린 검색 시간을 대폭 개선하고, 검색증강생성(RAG) 기술도 적용해 오류 정보를 답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도 최소화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업무 매뉴얼 AI 챗봇을 공개한 뒤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건 당 수분에서 수초대로 90% 이상 단축됐다.

또한 이달부터 사내 업무용 '협업툴'에도 '챗GPT'를 탑재한다. 이 역시 롯데그룹 AI 플랫폼인 '아이멤버'의 챗GPT 기능을 활용했다. 약 5000명의 임직



AI 업무 매뉴얼을 활용해 식품 위생 관리 점검을 하는 백화점직원의 모습. /롯데쇼핑

원이 활용 중인 사내 협업툴인 '잔디'에 챗GPT 기능을 적용해 필요에 따라 즉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광고 문구 생성, 파트너사 맞춤형 이메일 작성, 문서 요약 및 번역 등이 가능해, 업무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실제 기능 공개 이후 임직원들의 하루 평균 이용량은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빛나 기자

현대이지웰, 고객사 임직원 GS25 할인

GS리테일과 제휴맺어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털복지서비스 전문기업 현대이지웰은 GS리테일과 제휴를 맺고 오는 15일부터 고객사 임직원이 편의점 'GS25'에서 복지카드 결제 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4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이지웰의 멤버십 서비스인 'ez멤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 임직원은 전국에 위치한 GS25 1만 8000여 점포에서 복지카드 결제 시 구매금액의 2%를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ez멤버스는 현대이지웰이 제공하는 복지카드 할인 서비스로, 정관장·롯데리아·교보문고·백다방·에어서울·본죽

등 국내외 140여 브랜드에서 다양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이지웰은 최근 GS리테일의 슈퍼마켓 브랜드인 GS더프레시를 비롯해 홈플러스 등 고객 사용빈도가 높은 리테일 제휴처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대이지웰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2500여 고객사의 300여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위 복지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최빛나 기자

‘Y2K 패션의 부활’... 2002년 유행 젤리슈즈·반다나 컴백

〈Year 2000〉

올해 여름 Y2K 패션 유행 본격화
과거 패션제품 커스터마이징 유행
CJ온스타일 ‘뉴 클래식’ 룩 공개
멜리사 젤리슈즈 팝업스토어 선행

2000년대 패션을 뜻하는 Y2K(Year 2000) 패션 유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시작했던 젤리슈즈를 비롯해 반다나, 두건 등의 과거 패션 제품이 최근 몇년 새 젊은 층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여름 장마철에 Y2K 패션이 본격 유행하기 시작했다. 실제, 글로벌 의류 제조 기업인 한세실업은 2024년 패션 트렌드 키워드로 ‘레트로’를 제시했다. MZ세대로부터 관심을 받는 Y2K 패션 추세가 2024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미 일부 Y2K 패션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2022년 한 해를 휩쓸었다. 코로나19 동안 억눌렸던 소비자들의 개성이 Y2K 패션과 맞물려 새로운 유행을 선도한 것이다. 그러다가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



모루 열쇠고리, /안재선 수습기자



젤리슈즈 브랜드 멜리사 팝업스토어, /뉴시스

면서 실용성 있는 기본 디자인의 의류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기조에 맞춰 CJ온스타일은 올해 초 기본에 충실한 고전적인 제품들에 약간의 변화만을 준 ‘뉴 클래식’ 룩을 선보였다.

◆2002년 신었던 젤리슈즈, 반다나 두건 20년 만에 다시 주목

꺼진 줄 알았던 Y2K 유행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었다. 2002년 선풍적인 인

기를 끌었던 젤리슈즈가 2024 여름 다시금 인기 반열에 올랐다. SNS에 올라온 젤리슈즈 상품 소개 영상에 ‘좋아요’ 수가 1만 개가 넘었으며 조회수는 136만 회에 달했다. 소개된 제품은 현재 품질 상태로 예약 판매로 거래가 진행 중이다.

젤리슈즈 브랜드 ‘멜리사’ 또한 지난 6월 갤러리아백화점 서울 명품관에서

젤리슈즈 팝업스토어를 진행해 젤리슈즈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외에도 반다나, 두건 등 2000년대 유행했던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배우와 아이돌 등 연예인들이 Y2K 패션을 선보임에 따라 연예인이 쓴 두건 정보, 반다나 사용법 등의 글들이 SNS상에 공유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지난 6월 1일부터 27일까지 W컨셉의 두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고, 헤드 스카프나 반다나 스카프 등 스카프 관련 검색량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여전히 개성 표출 원한다... Y2K 패션 인기 요인, 커스터마이징

과거 유행했던 패션 제품을 소비자만의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Y2K 패션의 인기 요인으로 주목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젤리슈즈 상품들은 모두 장신구를 활용하여 일명 신구(신발 꾸미기)가 가능한 제품들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장신구들을 따로 구매해 젤리슈즈

라는 과거 제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꾸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커스터마이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제품은 ‘모루 인형 열쇠고리’다. 모루 인형 열쇠고리 역시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인형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주요인이다.

20대 이모 씨는 “인형을 열쇠고리로 달아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건 초등학교 시절 때였는데 지금 다시 직접 모루 인형을 만들어 인형을 가방에 매달고 다닌다”며 “직접 만든 인형이라 더 애착도 가고 나만의 취향으로 만든 인형이라 볼 때마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출시된 Y2K 패션 제품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20대 한 모 씨는 “기본 제품보다 꾸미는데 드는 장신구들 값이 더 비싸다”며 “신발값보다 신발을 꾸미는데 드는 액세서리 값이 더 드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너무 무서우면 ‘관람포기 비상벨’ 누르세요” 한미약품,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속도

Q 르포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토미에·소용돌이 등 공포만화 거장 6명씩 밧줄 잡고 전시장 내부 입장
관객에 직접적인 터치 등 없어 안전

“관람 도중 더 이상 관람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곳곳에 부착된 ‘관람 포기 비상벨’을 눌러 주시고 그 자리에 정지해 있으면 스태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LCE타워 DUEX에 오픈한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다. 얼마나 무섭길래 ‘관람 포기 비상벨’을 누르라는 걸까.

평일 오후 3시에 방문했음에도 입구에는 이미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 /메트로 신원선

는 내내 전시장 내부에서 먼저 입장한 관람객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토 준지(Junji Ito)는 현재 공포만화계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작가로, ‘토미에’ ‘소용돌이’ ‘소이치의 저주일기’ ‘목매는 기구’ 등 단편부터 시리즈에 이

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며 일본을 넘어 전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이토 준지 호러하우스’에 입장할 차례가 되면 6명씩 밧줄을 잡고 전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전시장 내부는 그의 작품 속 유명한 장면을 재현해놓으며 만화 속 캐릭터로 분한 연기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등장해 연기를 펼친다. 다행인 점이라면, 관객에게 직접적인 터치는 없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시를 주최한 웨이즈비의 임현란 대표는 “주말에는 일 평균 1000명, 평일에는 900명 정도가 방문한다”며 “관람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팀도 하루에 5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전시는 크게 두 개의 체험존과 한 개의 원화존으로 구성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美 메딕과 바이오마커 개발 협약

한미약품이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기업과 손잡고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미약품 본사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기업 메딕라이프사이언스와 신규 항암제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원 출신의 한규호 대표와 이홍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일루미나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BMS 등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력해 항암제 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메딕이 보유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3D 종양 모델 제작 기술 등을 활용해 신규 항암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하고, 항암제 후보물질의 적정 적응증을 탐색하는 공동연구를 목표로 한다.

바이오마커는 몸 속 세포,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체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다. 질병의 예측 및 조기 발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만한 환자들을 선별해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메딕의 크리스퍼 기반 암 유전자 발굴 플랫폼 ‘엠컷’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中소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협회사와 상생으로 경쟁력 강화

LG생활건강이 민간 주도의 기술 보호 확산을 위한 협약에 가입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앞장선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GS리테일, KT,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상생 자금 출연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협력 회사를 대상으로 보안정책 사업비, 보안 설계 비용 등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은 협력회사가 PC·문서



지난 11일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식’에서 최남수 LG생활건강 상무(오른쪽 두 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면, 중요 사업 데이터와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25년 전 가격으로 팝니다”

5일간 음료 3종 ‘커피 아워 25’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15일부터 5일간 베스트 음료 3종을 스타벅스의 최초 출시 가격에 제공하는 ‘커피 아워 25(COFFEE HOUR 25)’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5년간 스타벅스를 사랑해 준 고객과 앞으로 함께할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고객 사은 행사로, 스타벅스의 국내 진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 음료는 ▲카페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등 총 3종으로 1999년 스타벅스 코리아 개점 이후 지난 25년간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판매를 이어오고 있는 품목으로

선정됐다.

스타벅스는 이벤트 음료 3종을 스타벅스의 최초 출시 가격인 3000원(카페아메리카노), 3500원(카페라떼), 4000원(카라멜 마키아또)의 톨 사이즈 단일 규격으로 제공한다. 현재 가격 대비 최대 1900원이 할인된 금액이며, 평균 32% 할인이 적용됐다.

핫·아이스 및 블론드 원두로 변경 가능하며 디카페인, 1/2 디카페인 원두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300원 추가 결제 시 이용 가능하다. 샷 추가 및 휘핑크림 추가 등의 ‘프리 엑스트라’ 혜택은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 시 적용되며, 개인 컵 할인 및 에코 별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광고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롯데GRS, 금천구청과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롯데GRS는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청과 교육 기부 협약식을 12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GRS 차우철 대표(오른쪽)와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롯데GRS는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진로 탐색 활성화를 위한 공동 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롯데GRS



교원 웰스, 얼음정수기 '한국의 소비자대상'

교원 웰스(Wells)가 '2024 한국의 소비자대상'에서 얼음정수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4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얼음정수기 부문 대상을 거머쥔 '아이스원'은 크기는 줄이면서 아이스 룸 용량은 늘린 혁신 기술로 고객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대용량 아이스 룸까지 갖춰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부족함 없이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 /교원 웰스



한국외대 GTEP사업단, 국제주류·와인박람회 참가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기 양성사업단(단장 백재승, 이하 GTEP사업단)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 국제주류&와인박람회는 매년 약 1만명 이상의 국내외 바이어와 3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 주류 박람회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하대, 'With-I 진로 페스티벌' 4000명 몰려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청소년 진로박람회 '2024 With-I 진로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13일 열린 이번 진로 페스티벌에는 인하대 30여개 학과와 기관이 참여했다. 129일엔 사전 예약한 중·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했고, 13일엔 인천지역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하는 개방형 박람회 방식으로 열렸다. /인하대학교

부음

▲김복수(향년 73세)씨 별세, 이복순씨 남편상, 김지연·김희진·김국현(포인트데일리 산업부장)씨 부친상, 김문수(뉴스저널리즘 산업팀장)씨 시부상, 이권복씨 장인상 = 13일 오전 8시30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2-2030-4444
▲임민자씨 별세, 김연성(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씨 장모상 =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30분. 장지 분당 봉안당 홀. 02-2258-5940
▲김화중씨 별세, 김선혜·김선석·김선봉(한국증권금융상무)·김윤순·김순남·김윤순씨 부친상, 이성수(영등포구의원)씨 장인상, 이춘희(아시아경제 바이오통계분석부 기자)씨 외조부상 = 14일, 충남 공주시 공주장례식장 101호, 발인 16일 오전 7시. 041-854-1122

스파오, 한국의 멋 담은 '파리 패럴림픽' 단복 공개

이랜드, 韓 전통미 현대적 재해석 재킷, 태조 이성계 곤룡포 영감

스파오가 2024 파리 패럴림픽의 개·폐회식 때 대한민국 선수단이 착용할 단복을 14일 공개했다.

이번 패럴림픽 단복은 모든 선수의 신체 치수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개별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와 의수나 의족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위해 주머니나 지퍼, 벨크로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디자인은 한국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클래식한 멋을 살린 점이 특징이다. 재킷은 태조 이성계의 곤룡포에서 영감을 받아 네이비 트리밍과 오조룡 금속 단추, 단청 문



스파오가 공개한 2024 패럴림픽 단복 화보, 주정훈(태권도) 선수. /이랜드

양의 싸개 단추로 포인트를 줬다.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페도라는 태극무늬 띠를 돌렸으며, 타이와

망기에도 단청 문양을 활용했다. 단복 셋업과 셔츠, 이너웨어는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소재로 제작됐다. 재킷은 잔잔한 요철감과 트릴 조직 소재로 시원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바지는 고급 골프웨어에 주로 쓰이는 소재를 선택해 장시간 착용 시에도 편안하다. 스파오의 자체 개발 냉감 소재 쿨테크를 활용한 이너웨어는 뛰어난 통기성과 함께 접촉 냉감, 흡습속건 기능을 갖췄다.

패럴림픽 단복 화보 촬영에는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참여해 스포츠 정신과 열정을 담아냈다. 모델로는 김희진·서민지·박은지·김은지·심선화·최엄지(골볼), 정호원(보치아), 전민재(육상), 서수연·박진철(탁구), 주정훈(태권도)이 나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중진공,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롯데케미칼과 화학분야 협력 중소기업·ESG경영 전환

롯데케미칼이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부와 중진공이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의 공제부금을 지원해 협력사의 부담을 낮추고, 대·중소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협업 모델이다.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케미칼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오른쪽)와 롯데케미칼 최영광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70개 협업기관 근로자 총 1만2390명

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올해는 13개 기관의 근로자 총 6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분야 우수 협력 중소기업 핵심 인력 대상 상생협력형 공제부금 지원 ▲ESG경영 및 탄소중립 전환 주요 기업의 ESG경영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 자녀 영 어캡 및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휴가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 저출산 대응 국무총리 표창

이화의료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저출산 대응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4일 밝혔다.

김영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1만 명 이상의 임산부 분만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해 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중기유통센터 판판면세점 입점업체 모집

중기유통센터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전용 면세점(판판면세점)이 신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입점업체 모집을 시작한다.

14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판판면세점' 매장 4곳(신규 3곳, 리뉴얼 1곳)을 새로 열 계획이다.

인천 제2여객터미널은 스마트 체크인과 시큐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출국 수속 시간이 단축되고 연간 여객 수용 능력 및 화물 용량을 확대해 글로벌 메가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판판면세점 전경.

한국지엠, 장마철 침수차량 지원 캠페인

침수 차량 정비 시 수리비용 지원

한국지엠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침수 피해 고객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

해 웨보레 및 GMC 차량 구매 시 현금 지원 프로그램과 침수 피해 차량 정비 시 수리비용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캠페인을 각 프로그램 별로 기간을 정해 전개한다.

먼저 웨보레와 GMC 브랜드는 이달 말까지 침수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차구입 현금지원 프로그램

을 실시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이 웨보레 및 GMC 브랜드의 신차를 구입할 시, 피해를 입증할 보험사나 지자체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모델별로 웨보레 트래버스와 타호, GMC 시에라 구입 시 50만 원, 웨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는 2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양성운 기자 ysw@

NH농협은행, '글로벌 유소년 농구 슈퍼컵 in 포천' 개최

각국 80개팀, 1500명 유소년 참가

NH농협은행은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2024 글로벌 유소년 농구 슈퍼컵 in 포천' 개막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유소년 농구 슈퍼컵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에서 개최된 큰 호평을 얻었던 1회 대회 이후 5개

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경기도 포천에서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개막식에는 NH농협은행 박병규 수석부행장과 김민자 경기본부장, 김용태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시장, 임중훈 포천시의회장 및 참가 선수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포천시와 포천시체육회, 포천시농구협회, KXO(한국

3x3농구연맹)의 주최와 주관 NH농협은행의 메인 후원으로 개최된다. 세계 각국에서 80여 개 팀, 150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포천시 내 6개 체육관에서 동시 진행된다. 사흘간 U9부터 U18까지 총 7개 부문에 걸쳐 치열한 승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ION SUPPLY DRINK

POCARI SWEAT

동아오츠카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에 유의하세요

의대 정시 합격선 1위 '가톨릭대' 호남·충청권, 전국선발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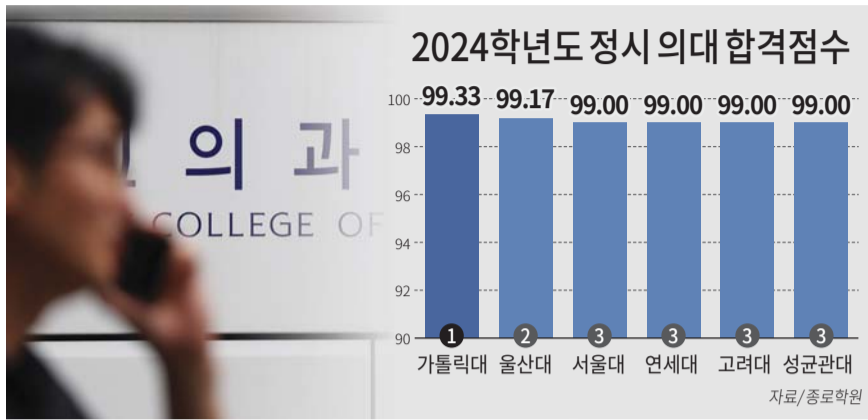
종로학원, 작년 의대 합격선 비교 의대 정시 합격선, 서울대가 '3위' 과탐 II 조건 완화에도 예측 어려워 지방권 지역인재전형 합격선도 ↑

2024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선이 가톨릭대학교·울산대학교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열 '과탐II 필수 응시' 조건을 없애며 입시 정책을 완화했지만, 수험생들은 되레 합격선 예측에 어려움을 느끼며 선뜻 정시 지원 카드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전국 의대의 정시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점수로 기준점이 동일한 31개 대학 최종 등록자 중 상위 70%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합격선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를 제치고 가톨릭대가 99.33점을 나타내며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울산대는 99.17점이며, 공동 3위를 차지한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각각 99.00점이다.

통상 '빅5' 병원을 보유한 의대의 합격선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대가 지난해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과탐 II 필수 응시 조건을 완화하면서 서울대 의대 경쟁률 및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은 빚나갔다.

실제로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의대의 경우 고려대가 3.53대 1로 제일



높았고, 연세대 3.43대 1, 서울대 3.15대 1을 나타냈다.

대학 입시 관계자는 "서울대의대 응시 조건 완화가 역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가 자연계열 '과탐II 필수 응시' 제한을 풀면서 더 많은 최상위권 수험생의 도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예년과 다른 입시 정책에 따라 합격선 예측에 어려움을 느끼며 일부 의대 지원자들이 선뜻 지원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학년도 의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평균합격선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97.92점을 기록한 호남권이다. 이어 ▲대구·경북(97.83점) ▲제주(97.67점) ▲부산·울산·경상(97.28점) ▲충청(97.01점) 순이다. 강원권은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없었다.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전국 단위 선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의대는 정시 전국 선발 평균 합격합격선은 97.83점으로 지역인재 합격점수가 0.08점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 또한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는 97.01점, 전국 선발 합격점수는 96.50점으로 지역인재 선발 합격 점수가 오히려 0.51점 높게 형성됐다. 제주권은 전국 선발 지역인재 선발이 각각 97.67점으로 동일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명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권 학생의 전국 혹은 지역인재전형 지원 결정에 고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권 정시와 지역인재전형에서는 권역 내 명문 자사고와 일반고 합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런 회원, '강남인강' 무료로 듣는다

별도 로그인 없이 콘텐츠 무료 제공

서울시의 무료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회원은 이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인 '강남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15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에게 강남인강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서울시의 대

표 교육 복지 사업이다.

강남인강은 강남구가 운영 중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다. 중·고등학생 누구나 내신·수능·입시와 관련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연 5만원(강남구민은 3만원)의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목고, EBS·대치동 학원 유명 강사진의 강의 2만여개가 마련됐다.

시는 서울런 홈페이지에 강남인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메뉴를 만들었다. 클릭 한 번으로 로그인 없이 강남인강 사이트로 이동해 2만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착한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쓰면 5% 할인

착한가격업소 대상 배달료 지원도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시내 1200여개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총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캐시백은 7월 15일 결제 건부터 적용

된다. 결제금액의 5%가 내달 20일에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이다. 해당 가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서울pay+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저렴하게 착한가격업소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닥터헬기' 인계점 57개소 운영

인계점 내 수리·개선 등 관리조치

인천광역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이·착륙장소)을 5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인 2011년 9월 운항을 시작한 인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로 연간 130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헬기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전문 의료 장비와 의약품 탑재는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송 중에도 응급진료가 가능하고, 365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되고 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닥터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로, 인천에는 총 57개의 인계점이 지정 운영돼 관리되고 있다. 인천시는 군·구와 지속적인 협의와 수요조사를 통해 인계점 내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김민석 기자 kmmmm112@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대상 확대해야”

서울시민, 온라인창구에 민원 접수 출산일에 따른 주거비 지원 민원에 市, 올해 출생아 소급 적용방안 검토 청년통장 신청대상 확대 요구도

서울시민들이 시정 민원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재검토,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 또는 모에게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진구에서 전세 4억원에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만 해당되는데, 저희 부부는 올 12월 25일이 예정일이라 일주일 차이를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혹시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 출산일에 따른 지원 기간 변동이라든지, 무주택가구의 소득 기준을 다시 산정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 공개 이후 많은 시민과 관련자들의 의견이 있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송파구 일대 한가람로 연결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한가람로 연결은 풍납동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풍납

동 주민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중단돼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애초 롯데타워 건축 심의 내용에 따라 풍납동까지 한가람로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도계획과는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올 연말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자녀를 둔 C씨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기초수급자는 자산이 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막아둔 것"이라고 하는데,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가난한 자에게 고기를 먹이면 체하니까 고기반찬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7월 15일 (월)
음력 : 6월 10일

수도권 날씨
23 ~ 3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인천광역시 인계점 위치도

- 연천 21/31
- 동두천 22/31
- 가평 21/31
- 파주 21/31
- 서울 23/31
- 양평 22/30
- 수원 24/29
- 용인 24/29
- 평택 22/30
- 백령도 21/27
- 인천 24/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FBI, 트럼프 유세장 총격범 신원 파악...20대 백인남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 폭격... 사망자 90명으로 늘어 /사진 뉴시스

▲트럼프 "총알 오른쪽 귀 관통...미국에서 이런 일이"
▲이란 대통령 당선인 "중러와 협력 강화할 것"



▲中 '3중전회' 15일 개막...시진핑 경제정책 청사진 공개 /사진 뉴시스
▲트럼프 총격 부상 소식에 비트코인 6만달러선 회복



버거부터 맥주까지 K-푸드 日 시장에 출사표 너



Life

Y2K 패션 부활 젤리슈즈·반다나 컴백 L2



“채소 구출해 보내드려요”... 농산물 폐기 줄여 선순환 앞장

새벽을 여는 사람들 // 친환경 농산물 정기배송 '어글리어스' 최현주 대표

“단순히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농부와 소비자,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겠다.”

친환경 채소박스 정기구독서비스 '어글리어스'를 운영하는 최현주 캐비지 대표의 목표다. 최현주 대표는 맛과 영양은 일반 농산물과 같지만 예쁘지 않아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을 전국에서 매입한다. 이를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기 배송 서비스로 제공한다.

최 대표는 농업전문가나 전문유통업자가 아니다. 농촌에서 자란 경험과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글리어스의 초석이 됐다. 처음에는 무작정 농가를 찾아가 농부를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못난이 농산물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할값에 팔았던 기존 판매 방식은 지양했다. 동정에 기대는 판매 방식도 피했다. 제철 농산물을 큐레이션 하고 1인 가구에 맞는 양으로 소량 판매했다. 여기에 콘텐츠를 만들어 가치를 더했다. 못난이 농산물에 스토리를 부여한 것이 적중했다.

실제로도 효과는 대단했다. 어글리어스는 서비스 출시 3년 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판매량은 150만kg을 넘겼다. 재구매율은 88%에 달했다. 혼자 시작했지만 지금은 23명의 직원과 함께한다. 30개 남짓했던 협력 농장은 3년 만에 400곳으로 늘었다.



◆못생긴 농산물 폐기는 자원과 노동력 낭비 그는 어글리어스가 못생긴 농산물을 구출해 소비자 맞춤형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최 대표는 못생긴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이 자원과 노동력 낭비라고 말한다.

그는 “못난이 농산물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이다. 예를 들어 감자는 120g이고 구부러짐이 없어야 시장 규격에 부합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버려진다. 버려지는 양이 30%에 달한다. 사실 폐기되는 양을 정확히 기록한 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UN이 추천한 값이 30% 정도”라며 “창고에 남았다가 가공업체에 팔거나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넘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는 폐기를 한다. 심지어 애초에 10% 폐기를 생각하고 재배한다. 우리는 이런 농산물을 구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는 자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못생긴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에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잘 안됐다. 농부들은 스스로 판매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수요가 적으니 할값으로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니면 동정에 기대 판매했다. 하지만 할값 판매도 선별, 유통 비용은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다. 싸게 팔아도 결국 수확 비용조차 안 나온다. 그래서 선별하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매력도가 떨어졌다.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하지만 개인이 사기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가다 저품질 제품까지 골라내 버려야 하니 한두 번 사고 포기한다. 동정에 기대어 판매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문제의 사슬을 끊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1인 가구에 초점... 못난이 위해 가치와 효용 창출

이에 어글리어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공급과 소비 양측면에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만든 것이 목표다.

최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 시장은 ‘떨어 판매’와 개념이 혼동돼 있어 품질 관리가 우선 돼야 했다. 이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요를 적절하게 형성해야 했다”며 “우리는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를 창출하고 효용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가구의 인원 수, 취향에 따라 ‘채소박스’의 크기, 배송 주기, 원하지 않는



최현주 어글리어스 대표.

/어글리어스



못난이 농산물 폐기에 문제의식 느껴 농산물 구출해 정기배송 서비스 제공 출시 3년 만에 가입자 20만명 돌파

1인가구 등 맞춤형 구매경험 제공 싱싱한 농산물에 스토리텔링 더해 레시피 콘텐츠 제공 등 전략 고도화

농부-소비자-환경 상생 모델 제시 스마일게이트 투자로 사업 속도 붙여

채소를 미리 선택하는 등 개인 맞춤형 구매 경험을 제공했다. 또 수확한 못난이 농산물을 바로 그 주에 싱싱하게 배송했다”며 “못난이 농산물에 개성도 부여했다. 모자라거나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애초부터 ‘개성 있는 채소’ 느낌으로 접근했다. 사진도 그냥 찍지 않았다. 울퉁불퉁한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등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더 했다”고 덧붙였다.

어글리어스는 이런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표는 “소비자가 ‘이번 주에는 어떤 요리를 할지, 그러려면 어떤 채소를 사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게 레시피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향후 좀더 앞서 어글리어스의 전략을 개인화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글리어스의 유통과정을 농부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버려졌던 30%의 판로가 열리며 추가 수익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400여 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전국 방방곡곡,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팔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가 많았다. 그래서 초반 거래처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소

문이나 소개로도 연결된다. 우리 비즈니스 주축은 생산자다.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농업 비즈니스를 해야 우리도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판로 다각화로 생산자의 추가 소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도움 커... 지속가능식탁 만들 것”

최 대표는 이같은 지속가능한 농업분야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는 유통 생태계를 바꿔 결국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우리 회사 DNA는 확실하다. 지속 가능한 식탁을 만든다. 생산자와 건강한 땅, 건강한 유통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식탁이 만들어진다. 유통 생태계를 바꿔 농산물 폐기를 줄인다.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어글리어스는 단순히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부와 소비자, 환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같은 어글리어스의 선순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기업의 투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스마일게이트의 투자덕에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우리 비즈니스는 공급과 수요 모두가 필요하다. 공급자가 생기려면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천히 성장하면 공급·수요 그룹을 모으고 유지하기 힘들다. 빨리 규모를 키워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 덕분에 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양사 모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감했다. 덕분에 이해도가 높았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해주는 게 아닌 네트워크, 경험, 식견, 채용 등 스타트업이 고민할 수 있는 대부분에 큰 도움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같은 활동에 더욱 적극 임해 좋은 뜻을 품은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불교계 “이승만기념관 건립, 韓 미래 어렵게 만든다”
▲오타니, MLB 통산 200홈런 폭발... 추신수 기록 넘나 /사진 뉴시스

▲국내 최대 IP 행사 캐릭터 페어 18일 개막
▲내달 5일 방심위 위원 임기 종료... 심의 마비 우려



▲프랑스 체육장관,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선강에 입수 /사진 뉴시스
▲“카카오톡 앱서 한강 수상레저 프로그램 예약하세요”